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최재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 충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선교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전진하라
무릎을 꿇은 채로
전진하는 정도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찬양집2)

거룩한 순종 그리고 거룩한 증거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충고하고 있다.(고전 7:23,24) 다윗은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고친다.(시 37:5)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만 만족함이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을까?'의 두려움과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노하시지 않았나?'의 공포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 원인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잠 3:5,6)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철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종종 옳은 일을 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어떠한 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옳은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요일 5:4,5) 요셉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창 45:5) 그래서 요셉은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신다.(시 119:105)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베포 1:20)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는 달리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 3:16)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성전으로 있다가 성령이 떠나시면 흠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인 육신이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이다.(고전 6:19,20)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지상명령입니다.(마 28:18~20) 지상명령이란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최고의 명령이란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우선 순위에서 '선교'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름이니까! 잠시 선교는 있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마 24:14) 선교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전 9:14) 비록 무더운 날씨를 피해 가족 간의 편안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엡 3:7) 우리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선교에 미참하셨다면 지금이라도 2007년 하반기 선교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행 5:42)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보통 사람들이라던 휴가 계획이 한창인 이 때에, 우리 교회의 선교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19개 팀을 시작으로 8월 초까지 중학생부터 어르신으로 구성된 60여 개의 선교팀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모두 황금 같은 방학, 휴가, 섬의 시간을 포기하고 선교를 가장 우선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고전 13:1~3)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선교팀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되어서 선교지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득하도록 새복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막 1:35) 특히 9월에 1차 CMC 훈련을 시작으로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선교가 시작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2007년 하반기 · 2008년 선교가 되도록 더욱 뜨거운 기도와 훈련에 참여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에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동태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히 4:12)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원하지만 성경에서 확인시켜 주는 말씀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성경에서 매일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요 16:13,14)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우리의 심령이 증거해 줄 때에 우리의 결정에 관하여 불안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중단하라든지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증거이다. 우리가 이러한 증거를 받는 것은 단순히 의심이 생기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 주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금하신 것을 볼 수 있다.(행 16:7)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몇 가지 일이 진행된다. 하나님의 뜻 즉 계획, 시간과 또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방법이 모두 맞아야 한다. 고넬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행 10:4,5) 동시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다.(행 10:19,20) 하나님의 뜻이 있으나 시간이 맞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방법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며 중단케 하시거나 천천히 움직이게 하시거나 또는 방향을 옮기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전 14:33)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도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쪽을 늘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다 하여도 순종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가 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역사 속에 기록될 21세기의 모습은 어떠한가! 문명이 아주 빠르게 진보되고 있으며, 역사는 우리가 처한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 정치 현실을 기록하여 줄 것이다. 이 속에서 기독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존심의 전쟁을 멈추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 거룩한 순종 그리고 거룩한 증거! 나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선택,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THIS DAY IS A DAY OF GOOD NEWS

⁽³⁾Now there were four leprous men at the entrance of the gate;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Why do we sit here until we die? ... ⁽¹⁰⁾So they came and called to the gatekeepers of the city, and they told them, saying, "We came to the camp of the Arameans, and behold, there was no one there, nor the voice of man, only the horses tied and the donkeys tied, and the tents just as they were." ⁽¹¹⁾The gatekeepers called and told it within the king's household. (2 Kings 7:3-11)

With a terrible famine striking their city and their enemies surrounding them, four lepers sat outside the gates of Samaria. They rightly reasoned that if they entered the city that they would die, and also if they continued to sit outside the city that they would die. So, they decided to get up and go over to their enemy's camp. If their enemy spared them, they might live; and if they killed them, then they would die. Their decision to move brought them wonderful blessings. Not only did they find their enemy's camp abandoned, but fully stocked with food, clothing, and money. It was like heaven. They took their fill with the first tent, and after they enjoyed the treasures of the second tent they felt uneasy, like they were doing something wrong. This was a day of good news, and they needed to share it. The people of Samaria were starving, thinking that their enemy was about to destroy them. The cost of food was outrageous (6:25), and the situation got so bad that two women ate one of their children with the promise that the other woman would sacrifice her son the next day.(6:28&29) Elisha, the prophet, told God's people, "Tomorrow about this time a measure of fine flour will be sold for a shekel, and two measures of barley for a shekel, in the gate of Samaria." (7:1) God's servant prophesied a blessing, but no one believed it. It was hard for them to imagine having food a plenty that would cost very little, when such severe poverty covered everything around them. The lost, weak, poor, unholy, and hopeless lepers had one thing—they still had life. They decided to get up and do something, and what happened because of that? Elisha's prophecy of blessing happened just as God said.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lepers.

The lepers asked themselves, "Why do we sit here until we die?" (v. 3) Many Christians, when depressed and faced with difficult circumstances, become paralyzed into inactivity. You cannot do anything once you are dead, but before death, you have a chance to do something. Doing nothing is dead wrong! People think they are so smart and always talking but never acting. Not moving is a terrible thing. I'm sure you have experienced someone telling you to do this or that, but because you think you have all the answers, you do not move. Please do not do that! There is a God, and this God sends His servants to call people to come to Jesus so that they can receive His blessings. The lepers needed to do nothing else but to wait and die, and so it is with every sinner. You do not need to commit one more sin to go to hell. Unbelief is a state of death. If you are apart from God, death is waiting. Whether you move or stay, you will face death without Jesus.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judged; he who does not believe has been judg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Jn. 3:18) John 3:36 emphasizes,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The lepers wisely analyzed their situation and concluded, "Why do we sit here until we die?" God calls out, "Cast away from you all your

transgressions which you have committed and make yourselves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For why will you die, O house of Israel?" (Ezek. 18:31) God's cry to sinners is, "Why will you die?" Hear God's cry; hear Jesus' cry; and hear the Spirit's cry: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All you have to do is move.

The lepers decided to go over to the camp. They reasoned, "If we say, 'We will enter the city, then the famine is in the city and we will die there; and if we sit here, we die also. Now therefore come, and let us go over to the camp of the Arameans. If they spare us, we will live; and if they kill us, we will but die.'" (v. 4) They made a good decision. Their ministry started, and yes, there was danger involved but they already were in danger of death. If they ventured forth, they might live. They had only one chance and they took it. They decided to take action. They decided to surrender and saved their life. If we surrender to Jesus Christ, He saves our life. The risk is yours, and the hope is eternal life. Jesus says,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If we go to Jesus we have everything. Do you now believe? If you believe, what happens? You will have peace and eternal life. God promises eternal life, and there is hope because the promise is from God. Do you believe it? All you have to do is move in faith!

After taking the blessings, the lepers said to one another, "We are not doing right. This day is a day of good news, but we are keeping silent; if we wait until morning light, punishment will overtake us. Now therefore come, let us go and tell the king's household." (v. 9) In their awakening they realized what they were doing was wrong, and they felt the need to share. They wanted their people to know that the enemy was defeated and all their provisions left behind. They found life, food, silver, gold, and everything needed for survival. The lepers shared the good news and the city was saved. Their actions not only saved themselves, but the whole city. Like the lepers, Jesus suffered outside the city. He won the victory by defeating Satan at the cross.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Do you really believe that He died on the cross for you?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God? Do you believe that He has the power to give you eternal life? If you do not move to Jesus you will surely die, but if you do move, then you will have life. If you find this life, you need to go and share it with others, so that they can be saved.

My dear friends, we are people of grace because God's grace is upon us. We are His children. Millions of souls in this world are starving and dying, and we need to go and share the good news with them. In Jesus Christ, everything is there, food, shelter, clothing, silver, gold, glory, and eternal life. The cross provides everything! Salvation has been provided at the cross, so that whoever trusts in Jesus can have eternal life. We do not do well if we hold our peace to ourselves—that is shameful. Please get up and go where Jesus leads you. ■

다음 주일 설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3)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 (40)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집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41)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열왕기하 7:3~11)**



김성만 목사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사마리아 성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 당한 가운데 성 안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문둥병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에 들어가도 죽고, 이대로 성 밖에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적군의 진지에 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그들을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었다면 죽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 보겠다고 한 그들의 결정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진지가 버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금과 은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은 천국 같았습니다. 그들은 일단 자신이 원하는 만큼 쟁쟁히 놓았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많은 보물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문득 자신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굶주리면서 곧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식량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치솟아 있었고(왕하 6:25), 두 여인이 약속하기를 내일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먹고 오늘을 자기 자식 중 하나를 먹자고 할 만큼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왕하 6:28,29)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찌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때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곧 가루 한 바와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이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겠느니라”(왕하 7:1) 하나님의 종은 축복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가난이 그들을 온통 엄습하고 있는 그대에 단 몇 톨로 그렇게 많은 식량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병고, 가난하고, 부정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문둥병자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장본인인 문둥병자들에게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문둥병자들은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3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낙담하게 되면 무기력해져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만족하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항상 말만 할 뿐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충고를 듣고도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면서 끔찍하지 않았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십니다. 문둥병자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 죄를 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리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없다면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요한복음 3:36은 강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현명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너희는 바른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찌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렘 18:3)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던 죽을 따름이라

문둥병자들은 적진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찌라도 성중은 우리나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서도 죽을찌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 두면 살려나와 우리를 죽이던 죽을 따름이라”(4절) 그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험을 감행한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번뿐인 기회였고 그들은 그것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공포스러울지라도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께로 가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평화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후 문둥병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지자 못보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를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찌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9절) 그들은 이전까지의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모든 군수품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졌고 식량, 금, 은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목숨만을 구한 게 아니라 온 성을 구했습니다. 문둥병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께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면 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종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수백만의 영혼들이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음식, 집, 옷, 금, 은, 영광 그리고 영생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들만 평화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7. 18.)

선교를 사랑하자

(고린도전서 13:1~3)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이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또한 선교는 사랑의 역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선교사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야 한다. 사랑의 메시지는 성령 속의 복음이다. 복음 그 자체인 성경만이 생명이며 동시에 사랑이다.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가? 선교를 진실로 사랑하는가?

선교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간을 사랑하는 선교여야 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고전 13: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자. 사랑이 없는 선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있을 때 진리를 찾는다. 간혹 자신의 직분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것은 선교지의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랑이 없는 선교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 따라서 선교는 전통과 자랑과 방법에 매여, 인간을 향한 사랑이 사라질 때 가장 위험하다. 선교의 결과와 교회의 자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꺾박을 받는 선교여야 한다. 선교를 사랑하는 신자는 인간을 사랑한다. 선교를 사랑하는 교회의 초점은 인간에게 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고전 13:2) 인간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이 없다면 선교도 사랑할 수 없다. 십자가와 자신을 바 꾸지. 자녀를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행 2:28) 복음의 은총으로 자신을 적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인간에게 전하는 선교를 하자.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선교여야 한다. 인간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의 영혼도 사랑하게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6,37)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가 아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교여야 한다. 온 천하는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관심도 영혼에 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시 34:18)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갈 때 가장 안타깝게 하시며 슬퍼하실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골 2:5)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자.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자. 십자가의 은총이 없는 영혼의 종말은 지옥이다. 따라서 선교를 사랑하는 신자와 교회는 영혼에 초점을 둔다. 복음의 은총으로 자신을 적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영혼에게 전하는 선교를 하자.

선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교여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더 이상의 핑계와 변명을 대지 말자.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고만다 버리자.(고후 13:4)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종인"(행 1:8) 즉, 예수님의 종인이다.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종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자.

선교를 사랑하는

신자와 교회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복음의 은총으로

자신을 적시어 예수님의 종인, 십자가를 전하는

선교를 하자.

선교를 사랑하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린 피로 자신을 흠뻑 적시자. 이처럼 보혈로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은 세상이 아닌 사람,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자.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곧 건지여라."(찬 258장) 아멘.

보혈의 능력을 믿는 10교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10교구는 중랑구 일부와 구리시, 남양주시, 공진구 일부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57세대(638명) 7개 지역과 21개 여성 구역과 7개 남성 구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양장 신 80명의 일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10교구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느라"(행 20:36)

교구의 지역장들은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을 섬기는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 활성화 계획표를 작성하여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들과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빌 1:27) 남성도들도 남성 구역모임에 모여 사랑의 교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구의 식구들이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0교구 식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엡 4:13,14) 특히 오랜 전통과 유전으로 내려온 모든 관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 18:8)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의 꾀계와 술수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요일 4:1~6)

교구 식구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복음으로 아주 강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와 멀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의 모든 식구들은 기쁨으로 나이나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요 8:47)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10교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승규(정로, 10교구장)

복음의 전지 2007년 여름수련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행 2:47)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

은혜의 소박비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되어버렸던 나는, 그냥 길바닥 위의 더러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낱새 나고 추악한 모습이었다. 이전에 주님께 “주님,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이라고 기도할 때, 슬피히 말해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의 무능함을 모르고 그저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삶 속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그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달라고 응답함으로 호소할 수 없다. 그저 나는 그저 죄 지음으로 버림받은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버려진 사실에 대해 따질 수도 없는 것이었다. 또 그 버려진 자리에서 점점 더 죄로 인해 썩어가며 결국 허무하게 아무 목적과 소망도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그 후의 내 삶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소망없던 나와 친히 교제하시교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반 수련회에서 깨달았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림받아도 아무도 봐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봐 두는 것이 신성하신 하나님께는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르는데 고작 나를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통 받으셨다니...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후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왜? 도대체 왜?”라는 질문뿐이었다. 그러자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자이다. 그런데 감히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속하여져 있고, 그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에 나는 무엇으로 그 영광과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 보지만 정말 죄인인 내가 하는 어떤 것 중에도 그 깨닫고 거룩하신 주님께는 도저히 드릴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삶을 보고 좌절하면서 내가 대제 주님의 자녀인가, 거듭났다고 믿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 실망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피 값을 주고 사신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임이 결코 취소되지 않으니 이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순종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님! 이것이 정말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로군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께 내어드릴 때의 기쁨과 영광은 지금 상생해 보아도 신기하고 가슴이 벅차기까지 하다. 이번 수련회에서 공부한 로마서 8장으로, 내 안에 아담의 계 역사를하시는 성령을 알았다.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나에게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전해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귀하고 능력이 있으며 오직 그것만이 진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신자(대학부)

허운자(권사, 장년부)

1984년 대학부 수련회 이후 23년 만에 간 수련회

20년 넘게 거의 빠졌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던 저에게 지난 해 11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때부터 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고구모일에 참석하였고, 장년1부 집회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 또한 변화하여 이제 저희가 겪는 가정예배도 드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맞이한 장년1·2부 수련회! 뭔가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아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당일, 예상과는 달리 사정이 생겨 30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도착하여서인지 이미 시작된 개회예배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의 마음을 열어 주셨고 주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며 방해하는 사탄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또 하나는 신령한 예배나 집회에 늦으면 은혜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석시간 이후 특강인 “한국 장로교회사”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교의 중요성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제도의 말씀은 내 안의 또 다른 나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도 바울마저도 스스로 인정한 곤고한 사람으로서(계 7:24)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딤후 6:11,12)

박성철(집사, 장년1부)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네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악조건의 터널 속에서도, 산고의 고통이 닥쳐온다 할 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고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용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미친한 죄인 위해 한 분밖에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시사 죄인들을 위해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시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를 놓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네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짝짝 놀라 가슴 뭉친 그 은혜와 그 사랑 감당할 줄 없네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를 놓지 말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지요. “무소 부재 하시고 무소 붙는 하신 주님”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아버지”예요.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땐 울며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 주셨잖아요. 기도는 약보다 더 무섭다고 했는데 불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자 나는 참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자 나를 사랑한만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니 항상 죄인으로 살고 있네요. 그래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주시든지 성숙된 믿음으로 순종할게요.

침술이 넘으니 어르신들까지 만들고 다듬어서 쓰임받게 하신 이는 주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필요하여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맑은 정신과 영혼을 주셔서 말씀 듣다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만나러 가게 해 주세요. 이제 남은 인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속에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세요. 천국행 구원 열차에서 중도 하차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과 우리의 보고서와 바꿀 수 있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적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아 보답할 길 없어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편지를 주님의 딸이 드립니다.

이영주(권사, 소망부)

망글까지

선교일기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첫째 날 한 마을에 들어서니 몇 사람의 노인들이 담소하고 있어 다가가 인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지나가던 아이들도 발을 멈추고 복음을 들었다. 노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아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읽게 하니 이해되는 듯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였다. 모인 사람들에게 열접기도를 하게 한 뒤 다시 여러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

둘째 날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사역을 시작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었지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에 더욱 열심으로 다녔다. 간혹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힘이 저절로 솟았다.

셋째 날 집집마다 문이 꼭꼭 잠긴 채 인가척도 없고 개 짖는 소리로만 요란하다. 들란에서 몇 사람의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는데 한 여인이 계속 방해를 했다. 그 곳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니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다시 이웃 마을에서 젊은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한 집에 들어가니 노인 한 분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넷째 날 농촌 마을로 사역을 나갔다. 한 집에 들어갈 때 한 노인이 한국말로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안에 들어가니 많은 여인들이 카드놀이하고 있다. 우리의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길을 잃고 헤매다 초원에서 쉬고 있던 양치기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시 한 마을에 들어가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있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다섯째 날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난 뒤 농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쳐 오후 사역을 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여섯째 날 밤새 내리던 비가 오전에 그쳤다. 우리는 다음 날의 귀국 비행기 시간 때문에 아쉬움을 남긴 채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다. 비록 우리는 떠나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고 사역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신정숙(집사, 10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9일(월) ~ 7월 17일(화)	15·14·18교구 대학부 연합	유종석
7월 9일(월) ~ 7월 17일(화)	23교구	이효일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6일(월) ~ 7월 24일(화)	1·2교구·대학부·타교 연합	김신국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9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3일(월) ~ 7월 31일(화)	13교구	조종연
7월 23일(월) ~ 7월 31일(화)	23·2·6·17·18 21교구·고동부 연합	노은영
7월 23일(월) ~ 7월 31일(화)	4·5·14교구·대학부 연합	정태동
7월 24일(화) ~ 8월 2일(목)	12·11교구 연합	이인용
7월 25일(수) ~ 8월 2일(목)	1·2·3교구·중동2부 대학부 연합	윤선한
7월 25일(수) ~ 8월 2일(목)	18·16·19교구 대학부 연합	김종열
7월 25일(수) ~ 8월 2일(목)	2·1·10·대학부 연합	최계열
7월 25일(수) ~ 8월 2일(목)	21·3교구 연합	유병수
7월 26일(목) ~ 8월 2일(목)	9·7·21·23·24교구 타교 연합	조영구
7월 26일(목) ~ 8월 2일(목)	12·2·10·11·27·타교 연합	김명성
7월 26일(목) ~ 8월 3일(금)	6·17교구·대학부 연합	김영주
7월 26일(목) ~ 8월 3일(금)	6·2교구 연합	이세영
7월 27일(금) ~ 8월 3일(금)	6교구·대학부·청년2부 타교 연합	김현철
7월 27일(금) ~ 8월 3일(금)	7·8교구 연합	박용기
7월 27일(금) ~ 8월 3일(금)	8·7·23교구 연합	장병준
7월 27일(금) ~ 8월 4일(토)	10·9교구 연합	김해일
7월 27일(금) ~ 8월 4일(토)	17교구	남중호
7월 27일(금) ~ 8월 4일(토)	할렐루야 찬양대②	강일규
7월 28일(토) ~ 8월 4일(토)	아멘 찬양대	이정태

죄인의 변화, 기적의 증인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크리스천을 미워하고 압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2006년 1월 1일에 천주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행복아리 신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입니다. 불과 2년 전의 저는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선교지의 영혼들의 모습이 바로 2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우리 가족들과 같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강했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뜨거웠습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짧은 언어, 몇 문장이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열접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두 손 꼭 모으고 눈물을 글썽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던 영혼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위해 더욱 더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현지 경찰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의 마음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했고, 많은 이들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팀은 오히려 매순간 감탄하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물론, 현지 날씨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팀이 하나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에 짐을 먹고 찬양하는 중에, 한국에 돌아오는 공항과 기내에서까지도,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려한 방법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한 저와 우리 팀을 통해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선교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박신정(청년1부)

은총 그리고 은총의 역사



첫 번째 시역지인 R지역 농אי인의 형편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대부분 직장이 없었고 우리 돈으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오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아이들도 있었지만 겨우 텃밭 수준이어서 제 식구만 먹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마약과 술에 찌들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 농아이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그들이 이단인 줄 모른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농아이회에서 소개해 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장과 공원에서 비닐봉투를 파는 농아이들을 몇몇 만났습니다. 그들을 매일 만나 전도한 뒤 처음으로 한인교회의 예배실을 빌려 현지 농아이 3명과 예배를 드린 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R지역에서 두 달간 복음을 전한 뒤, 선교지를 옮겨 남은 기간 동안 B지역의 농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B지역의 선교 환경은 R지역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B지역은 유대인 지치구역이라 기독교를 탄압했고 얼마 전에 선교사 몇 사람이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농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방광암으로 투병중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다섯 차례쯤 심방을 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 계속 전했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3개월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주님이 부여하신 은총이 가득했기에 사역 내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복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를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농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만 했지만 귀국하는 발걸음이 크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그곳 농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주님께서 그곳의 농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팔 때까지 전하여 온전하 만민이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영미·전혜영(광신대 단기선교사, 에베다부)

*농아이으로서, 지난 4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A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광신대 단기선교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 선교위원회(내선357)로 연락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부족한 제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찬양, 기도로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시 결심이 무너지는 저의 삶을 보면서 항상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꽉 막힌 삶에 주님은 저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쁘고, 좋을 때만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여주소서." 저의 삶을 내가 살려고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욕심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맡기니 주님은 찬송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나 혼자 잘 해 나갈 수 있을꺼야"** 하는 나의 고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님 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말씀과 찬양, 기도로 주님께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성한 맘 고치소서." 찬양대에서 주님께 드릴 찬양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저의 성한 마음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직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 주말이 되면 목이 너무 아프고 목이 쉬어서, 깨끗하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찬양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시 56:10) 어느 곳,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희정(집사, 임마누엘 전당대)

*임마누엘 전당대는 주일2부(오전 9시) 예배를 섬기는 전당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존의 19개 교구를 25개 교구로 세분하고 지역을 새롭게 정한 것은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14세 이상의 성도들과 교회학교 학생들 간의 분리를 없애고 모두 한 교구에 속한 성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교회학교 별로 나누어서 섬기던 것을 이제는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함께 교구에 편성해서 가족 단위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가족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함께 돌보고 섬기려는 복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 간에도 서로 시간과 장소가 다른 예배로 인해 공유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교구가 세분화되고 가족 전체를 섬기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교구위원회의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약 다른 것으로 세운다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각 가정의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 교구가 하나가 되고 총현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 될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으면 어느 교구에 속하거나 어느 구역에 새롭게 편입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됩니다. 총현교회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권면해 주십시오. 한 가족이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신약한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자녀들을 권면할 때 우리 각성이 십자가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되는 교구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장덕(목사, 제2교구위원회 지도)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65	최도라	25	외선부	
1266	이동은	9	청년1부	
1267	김민희	23	장년3부	서인순(14)
1268	이옥재	16	소양부	박성원(16)
1269	이달현	18	장년1부	방영은(18)
1270	김미라	5	장년1부	윤수원(6)
1271	최규상	13	청년2부	
1272	임규진	20	종동3부	최영욱(24)
1273	김수현	14	청년1부	정영주(5)
1274	장규진	14	대학부	정영주(5)
1275	홍수민	5	대학부	
1276	김민웅	7	장년3부	김윤정(7)
1277	서성일	20	장년1부	이상훈(1)
1278	류영성	2	청년2부	김윤현(2)
1279	이현하	11	청년1부	박재현(12)
1280	이민호	20	대학부	
1281	김민지	5	청년1부	
1282	서명진	5	청년1부	
1283	조아름	7	대학부	조영종(7)
1284	김정길	23	장년3부	이진규(6)

*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셔서 바랍니다. *

